

정유, 매출 과점화 현상 심각하다!

개혁연대, 50대 매출비중 61.4% ... 102대기업이 제조업 45.3% 차지

상위 200대기업 중 제조기업으로 분류되는 102곳의 총 매출액이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경제개혁연대가 3월26일 발간한 <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(1)>에 따르면,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상위 200대기업(금융·보험 제외) 중 제조기업은 모두 102곳으로 총 매출액이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5.3%를 차지했다.

특히, 제조업 중 석유정제(61.4%), 전자부품·영상·통신장비(71.5%), 자동차(58.4%), 조선(58.9%)은 50대기업군 소속 거대기업들의 매출액 점유율이 50%를 넘어 과점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.

또한 200대기업 중 40개 재벌그룹 계열사는 모두 127곳이며 자산 합계와 매출액 합계가 각각 전체 200대기업의 62.7%, 69.5%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했다.

아울러 상위 50대기업에 5대 재벌 계열사가 17개(34%) 포함돼 있고 17사는 자산 합계에서 50대기업 전체의 42%, 매출액의 50.1%를 각각 점유했다.

200대기업의 실질적 설립연도는 1981년 이후 최근 25년 사이 설립된 곳이 상위 50대기업군에서 7개, 51-100위 기업군에서 13개, 101-200위 기업군에서 3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3/26>